

엔지니어링 정신이 살아있는 곳 '새 기계 만드는 즐거움으로 일한다'

'93 JAPAN PACK 국내 유일 참가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93 JAPAN PACK 전시장에는 참가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늘어서 있었다.

많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태극기.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가하여 동경 국제전분시회장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한 업체가 바로 부천기계(대표 韓相隆)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위치한 허름한 이층 건물에 기자가 도착했을 때, 이윤형 전무는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JAPAN PACK 참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기계는 WIDER-A II 로, Aluminium Forming Blister입니다. 지금까지의 Blister기가 대부분 Aluminium판에 PVC를 입히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습기를 빨아들이고 차광효과가 약할 뿐 아니라 PVC와 Aluminium판을 분리할 수 없어 재활용도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PVC를 Aluminium으로 대체했지요. 즉 Aluminium판에 다시 Aluminium으로 Forming을 하면 물성도 우수해지고 한가지 재질만 사용하니까 재활용하기도 쉬워졌습니다.

더구나 WIDER-A II 기는 간단한

▶ JAPAN PACK 전시장내에 설치된 부천기계 부스



조작으로 PVC와 Aluminium을 겸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JAPAN PACK에서도 많은 해외 업체들이 관심을 보여 차후 기대가 크다고

부천기계는 일본 Mutual Corporation사가 총판매를 맡고 있어 전시회 참가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사실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서 적지않은 지출을 감수하고 해외전시회 출품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넓은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이전무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경기가 불투명해 포장기계의 수요가 낮은 반면, 일본 대만 등 동남아 지역은 시장개척의 여지가 많다는 것.

그러나 국내 포장기의 많은 부분이 외국 기계의 복제품에 불과하고 그나

마 외국 라이선스에 묶여 있어 해외 전시회 출품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에 판매망을 확보하고 유일하게 해외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었던 부천기계의 힘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엔지니어링 정신일 것이다.

"사장님을 비롯하여 거의 전 사원이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우리 회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엔지니어링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계속적인 사원교육이다.

"설계 파트에 있는 10여명이 모두 일본연수를 마쳤으며, 조립을 담당하는 사원들도 반이상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계속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만이 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84년 설립, 88년 수출 1호기 선적

부천기계는 지난 84년 9월 Auto Blister Machine 제작에 착수하면서 설립되어 다음해에 자본금 5천만원, 사원주주 12명의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

그리고 87년 1월 Cartoning Machine 개발을 결정, 10월에는 자본금 1억원으로 1차 증자를 하였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온양제1공장(대지 2천2백평, 건물 1백평)의 신축에 착수한 것도 그해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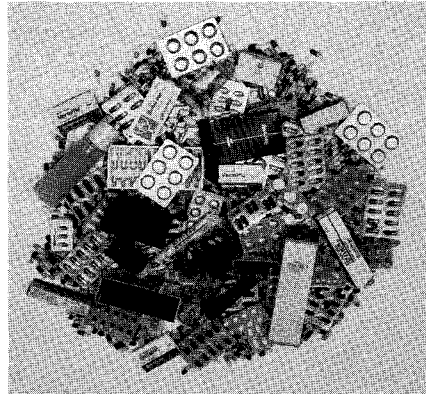
다음해인 88년에는 일본 Mutual Corporation과 협력관계를 맺고 수출 1호(Cartone Former)를 선적하기에 이른다. 또 그해에 2차 증자(자본금 1억5천만원)도 하였다.

89년에는 온양공장을 증축하여 현대자동차 Excel (X-II) Aircone용 Hose Ass'y의 양산에 들어갔다.

온양공장의 2차증축(공장 2백평, 기숙사동 2백평)과 3차 증자(자본금 2억원)는 지난 91년의 일이다.

한발한발 쉬임없이 걸어온 10년이였다.

10년동안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전무는 이렇게 대답했다.



▲WIDER, WINNER기로 포장한 제품들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문생산체제라 주문이 밀리면 제 때 납품을 하지못해 애를 먹기도 하고 또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오히려 주문이 적어 걱정이라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마 장사를 목적으로 했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새 기계 만드는 게 즐거울 뿐입니다.”

힘든 일을 힘겹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히려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부천기계의 엔지니어링 정신이었다.

현재 부천기계는 임원을 포함 약 1백50명(부천공장 : 약 30명, 온양공장 : 약 1백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아래와 같다.

사원주주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애사심이 높다는 것 또한 부천기계의 큰 자랑거리이다.

BLISTER와 CARTON기 생산

부천기계가 설계, 생산하는 품목은 Automatic Blister Packaging Machine과 Automatic Cartoning Machine 및 기타 전용기이다.

Blister에는 PVC Forming Blister와 Aluminium Forming Blister, Card Blister가 있으며, Cartoning기는 Intermittent Motion Cartoner, Continuous Motiom Cartoner, 10Vial Cartoner, Semiauto Cartoner, Carton Former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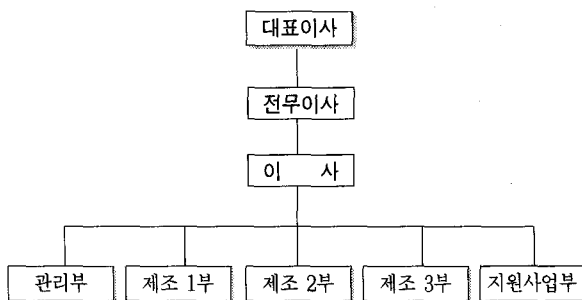
생산된 Blister, Carton기는 90% 이상 약품포장에 이용되고 건강식품이나 제과류에서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PVC Blister기는 국내 대부분의 제약회사에 납품되어 있으며, 새로 개발된 Aluminium Blister도 다만 제약 회사의 오더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계는 [표2]와 같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계획에 관해

[표 1]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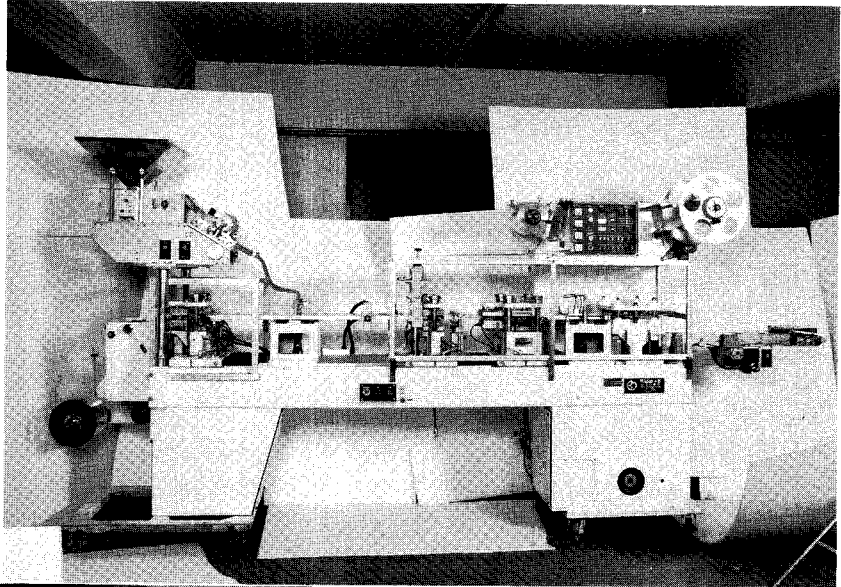


[표 2] 부천기계의 생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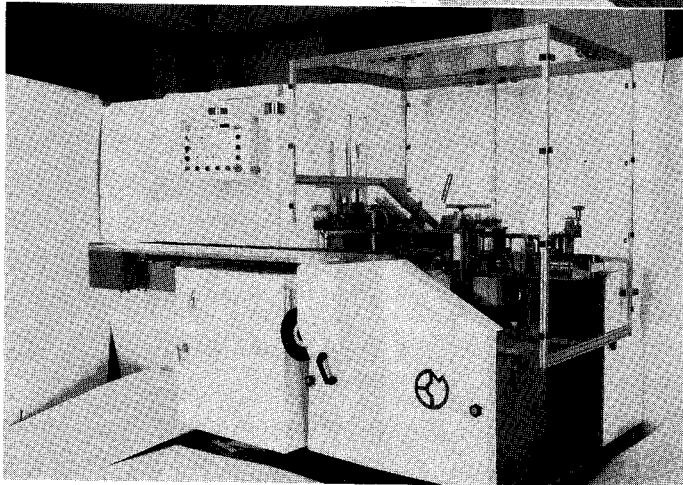
모 델	WIDER-I	WIDER-AI	WINNER-I	WINNER-II
용 도	BLISTER		CARTON	
성형면적	최대 210×112mm	최대 200×110mm		
성형깊이	최대 25mm	최대 18mm		
능 력	최대 50/MIN	AL 30/MIN PVC 50/MIN	100/MIN	60/MIN
진 력	약 7KVA	약 7KVA	약 2KVA	약 2.5KVA
무 게	약 1500Kg	약 1500Kg	약 800Kg	약 1100Kg
부 피	L : 4180mm W : 840mm H : 1850mm	L : 4500mm W : 750mm H : 1900mm	L : 2650mm W : 1560mm H : 1875mm	L : 3110mm W : 1660mm H : 1875mm

● ● ●
 “내년쯤에는
 1백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는 게
 부천기계의 목표입니다.”

▼ BLISTER기인 WIDER-II



▼ CARTON기인 WINNER-II



! ! !
 “무엇보다
 포장자동화, 사무자동화를
 위에서 꾸준히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겠지요.”

질문하였다.

“매년 50만불 정도의 수출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병역 특례혜택도 받고 있지요. 내년쯤에는 1백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는 게 우리 부천의 목표입니다.”

시화공단으로의 이전도 추진중입니다. 부지도 이미 확보된 상태죠.

하지만 무엇보다 포장자동화,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꾸준히 기술개발

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겠지요.”

10년전 포장기계 산업에 뛰어들었던 부천기계의 힘은 아주 작았을 것이다. 한발자국씩 걸어가던 그들의 행보를 눈여겨 보여주는 사람조차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포장기계 분야에서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다.

그 성장은 임원, 사원 구분없이 똑

같은 작업복을 입고 새로운 기계를 만든다는 기쁨만으로 묵묵히 걸어온 부천기계의 엔지니어링 정신 때문일 것이다.

윤희진 기자